

['생태계 보물섬 제주' 그 百年의 기록<25>]한라산생태계 파괴 확대... 심각성 제기

제1부 제주식물 세계화 100년<24>-1970년대 연구동향·보고서

입력 : 2004. 09.08. 00:00:00



▲1985년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 당시 등산로 주변의 파괴현장. /사진=학술조사보고서 중에서.

1970년대 이후 들어 한라산은 탐방객의 집중적인 이용 등에 말미암아 크게 생채기를 내고 있었다.

제주도는 1985년부터 제1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의거해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와 때맞춰 환경보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다. 능률성만을 중시하는 인식보다 환경보전이 제주개발의 부가적 조건으로 강하게 대두되었다.

이 해에 처음으로 제주도가 주관이 돼 한라산에 대한 종합학술조사가 실시된 것은 자연생태계 보전에 대한 시대적 소명과도 같았다.

조사단은 보고서 서두에 조사목적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한라산 천연보호구역내 생태계의 실상과 그 유지기구에 관한 학술조사를 수행함으로써 날로 광범위하게 점증돼 가고 있는 자연훼손 상태와 그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파괴실태를 파악해 자연림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귀중한 자연자원의 항구적인 보전대책 수립에 이바지 하는데 있다.'

당시 장병구 제주도지사도 발간사를 통해 "본도는 한라산 천연보호구역내의 희귀 동·식물을 비롯한 지형 지질 및 광물상 등의 자원 분포상황과 백록담 등의 자연훼손실태를 조사하여 이에 대한 이용과 보존관리 종합대책을 규명하기 위해 용역을 의뢰했던 것이다"고 밝히고 있다.

실제로 한라산은 이미 등산로는 물론 정상 일대까지 파괴와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었다. 학술조사보고서 첫 머리를 장식하는 사진에는 등산로변을 중심으로 심하게 망가진 한라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조사에서는 동·식물, 지질, 경관 및 자연훼손 등 여러 방면의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한라산이 간직하고 있는 가치를 발굴하고 학술적으로 재조명하는 목적을 띄고 있었다. 당시 학술용역사업은 제주대학교에 의뢰해 실시됐다.

조사기간은 1985년 7월부터 12월 20일까지로 돼 있지만 이는 보고서 제출을 위한 용역 수행기간일뿐 보고서상에 나타난 연구결과는 수년간에 걸친 연구보고의 결정물이었다. 조사구역

은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단은 훗날 제주대 총장을 지낸 김형욱교수를 단장으로, ▷기후=김형욱 손인석(제주대) ▷지형·지질=정창희(서울대) 윤정수 손인석 고기원(제주대) ▷토양=김형욱 이신찬(제주대) ▷식생=김문홍 김찬수 남정현(제주대) ▷희귀식물·특산식물=이창복(서울대) ▷구상나무 병해충=부경생(서울대) 권오균 이용필(제주대) ▷곤충=이영인(농촌진흥청) 김원택 김대호(제주대) ▷양서파충류=백남극(강원대) 김창한(충북대) 심재한(인하대) ▷조류=원병오(경희대) 박행신 소대진(제주대) ▷포유동물=박행신 ▷자연 및 생태계 훼손=오덕철 이종석 강옥철 김동석(제주대) ▷이용·관리=임경빈(서울대) 이종석 신상범(자연보존협회 제주도지부) ▷보호대책=이종석 박행신 ▷천지연=이종석 박행신 오덕철 김문홍 윤정수 등이다. 조사분야나 연구진으로 볼때 제주도가 주관인 학술조사로는 역대 최대규모였다.

제주대 김문홍은 제주도의 식물상을 재정리하여 제주도의 자생 관속식물이 추자군도를 포함해 1,795종류에 이른다고 보고했다. 그는 보고서에서 새롭게 확인된 식물은 '흰설앵초'와 '흰산박하' 등 2종류의 신종종을 포함해 13종류의 제주도 미기록식물이 추가된 15종류라고 발표했다. 한라산의 구상나무림과 정상 부근의 키작은 관목지대, 초원지대의 식물생태에 대해서도 보고했다.

이창복은 제주도의 특산식물 및 희귀식물에 대하여 보고했다. 그는 한라산에서 자라는 자생 식물 중에서 3백5종의 특산·희귀식물을 조사해 수록했는데 한라산에서만 자라는 특산식물은 75종이라고 주장했다.

김찬수는 한라산 아고산대 초원 및 관목림의 종(種) 조성(組成)과 식물사회학적 체계에 대해 보고했다. 제주대 이용필 등은 구상나무의 병·해충 조사보고를 통해 '구상나무의 수령은 백년 내외인데 유목(幼木)이 없는 것은 앞으로 이와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몇 십년후에는 구상나무가 멸종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조속히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특히 보고서는 백록담 등 한라산 천연보호구역내 생태계 훼손실태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대책을 주문하고 있다. 조사단은 훼손 원인과 관련해 인위적, 자연적, 그리고 두가지가 혼합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구분했다.

인위적 훼손은 쓰레기 투기와 좁은 등산로에 많은 등산객이 통행함으로 인해 그 주변 파괴가 나타나고 있으며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 더 파괴가 일어나지 않게 하거나 원상태로 회복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위적인 훼손요인으로 도채현상을 꼽고 희귀수목이 수난을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자연적 파괴와 인위적 훼손이 혼합되어 일어나는 현상은 주로 대피소 주변과 등산로를 따라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등산객이 훼손한 자리에 자연현상이 가중되어 심화되거나 또는 그 반대의 현상들로서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강조했다.

주목할만한 대목은 한라산에서의 우마방목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다. '천연보호구역내에는 아직도 우마를 방목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 식생이 훼손되거나, 등산로가 무너지는 일이 빈번하고 산사태를 유발시키는 시원점(始原點)을 만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한라산천연보호구역내에서의 우마 방목은 이후 사실상 자취를 감추게 된다. 그러나 천연보호구역내 우마방목은 아직도 생태계 훼손여부와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강시영기자 sykang@hallailbo.co.kr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